

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*

성태윤 교수

토론 신관호 교수

주요 쟁점

- 명칭 및 정의 관련 쟁점
- 학문흐름상의 쟁점
- 현실인식상의 쟁점
- 이론모형상의 쟁점
- 정책처방상의 쟁점

소득불평등이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?

- 소득불평등이 재산권을 약화시키거나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형성을 방해한다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최근 IMF연구에 의하면 불평등이 크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져 투자를 저해하고 경우에 따라선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
- 소득불평등이 총수요감소를 초래해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면 Hysteresis 문제를 통해 장기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

=> 노동소득 증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?
ex) 최저임금상승 vs. 빈곤층 학자금보조

- 임금상승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을 위한 R&D투자를 늘린다면 기술진보도 가능: Storm and Naastepad (2012)
=> 하지만 이는 Labor-saving technology일 가능성이 높아 고용을 줄일 수도...

노동소득분배 저하 vs. 청년실업과 노인빈곤

- 한국은 일반적인 불평등보다 빈곤 문제가 보다 심각
- 실업이 청년층에 집중

⇒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로 접근 가능

- 노동소득분배를 높이는 것이 과연 정책수단일 수 있을지?

⇒ 이러한 문제를 답하기 위해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
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

⇒ 만약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이유가 자본에 보완적인
기술진보 때문이라면 이를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것은
시장왜곡을 심하게 할 가능성

이론모형상의 쟁점

- 임금주도성장이 가능한 경우
 - 투자가 생산시설활용도에 크게 반응해야
 - 자본가계층의 저축성향 >> 노동자계층의 저축성향
-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요창출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본가동률을 높이는 데 지나지 않음
- 개방경제 하에서는 해외수요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
- Lucas Critique?

정책처방 상의 쟁점

-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에 대한 고려
 -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시장의 효율적 분배에 왜곡을 초래하므로 되도록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
 - 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 이에 대해선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대처
 - 사회복지의 확대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
 -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수요 창출

정책처방 상의 쟁점

-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
- 경제문헌에 따르면 때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장기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(예를 들어 World Bank (2007))
 - 교육
 - 인프라투자
 - R&D 투자
 - 개방
 - 금융발전
 - 경쟁
 - 제도